

젠더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 특성*

진양명숙**

Keywords

귀농·귀촌 여성(women returning to rural areas), 젠더(gender), 여성주의(feminism), 여성적 일자리(feminine jobs), 여성 연대(feminine networks)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ettlement process of women returning to rural areas in a feminist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describes how their motivations of moving to rural areas and the settlement process reflect their gender experiences. The second chapter explores how these women develop their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se women migrants' identities as an active and autonomous agent in rural communities rather than as a complier or victim of the patriarchy system, struggling with double burden from housework and economic activities. This research represents that the motherhood identity is one of the factors considerably empowering the women migrants in their settlement process of rural society. Of course, these women occasionally confront a variety of difficulties caused by conservative and patriarchy gender systems. Nevertheless, most of the women keep making efforts to settle themselves in a rural community by looking for feminine jobs appropriate for the gender sensibility and developing their feminine networks.

차례

1. 서론
2. 농촌 정착 과정에서의 여성적 경험과 특성
3. 농촌 정착을 향한 주체화 양상
4. 결론: 연구의 요약과 한계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6305).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플러스 사업단 연구원, e-mail: sljin@hanmail.net

1. 서론

한국 사회에 귀농·귀촌이 사회적 현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IMF 직후이다. 대량실업과 고용 위기 속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귀농 연구도 도시민의 농촌지향 가구가 급증한 1997~199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000~2005년 다소 정체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웰빙 바람 및 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강화 등으로 급증하였다(오수호 2011: 80).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관한 연구는 급속도로 쏟아지고 있지만 귀농·귀촌 여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이 글은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농촌 사회에 정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존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구 단위로 이뤄진 귀농·귀촌 연구는 농촌 이주 동기 및 정착을 둘러싼 성별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여성의 주체적인 위치를 소홀히 다루었고, 여성을 농촌 사회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귀농·귀촌 여성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그들의 농촌 이주가 지닌 다양한 의미와 전망을 짚어내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예를 들어 정다래 2009; 성지혜 2011; 진명숙·박성정 2012).²

정다래(2009)는 농촌으로 이주한 비혼 여성들의 삶의 변화와 인식, 그것이 지닌 긍정적인 가치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비혼 여성들의 실천적 성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였고, 특히 가족, 육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비혼’ 여성들만을 다룸으로써, 젠더화된 경험과 특성을 다양하게 탐구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도 고백하였듯이 농촌에서 보기 드문 ‘비혼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나머지 이 논의는 특수한 사례로 흘러들어가

1 귀농, 귀촌, 귀농·귀촌 용어에 대해 학술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 농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귀농인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을 귀촌인으로 분류하지만, 귀농 개념에 귀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귀촌 개념에 귀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여성을 ‘귀농·귀촌’ 여성으로 명명하였다. 물론 이 용어에는 농업 영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농업 영위보다는 농촌으로의 이주에 방점을 찍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여성은 농촌 이주 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촌 이주 여성이라 할 때 결혼이민자 여성과 중복되므로 ‘귀농·귀촌 여성’으로 명명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2001년 「환경과 생명」 28호에는 ‘귀농에 드러난 여성 주체의 얼굴’이란 글이 실려 있다. 에코페미니즘 연구모임, ‘꿈지모’의 이윤숙이 여성을 귀농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짧은 에세이 형태의 원고여서, 깊이 있는 학술적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 십상이다. 성지혜(2011)는 연고지/무연고지에 따라 여성의 농촌 적응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로 귀농하였으나 ‘농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귀농하지 않은 여성’으로 위치지음으로써 농촌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젠더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귀농 여성들의 농촌 적응은 연고지/무연고지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귀농의 동기, 가족 구성 및 특성, 이주 이전과 현재의 직업 세계, 개인의 성향, 마을의 특징 등 다른 요인도 여성의 농촌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 진명숙·박성정(2012)의 연구는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이주 동기, 농촌 이주 후의 자기 정체성, 자녀 양육,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정착의 과정을 평면적으로만 기술하여,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경험이 지닌 함의와 그 역동을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을 젠더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부각하려는 시도이다. 젠더는 사회화된 성역할의 산물로서, 남성과 여성은 사회화를 통해 젠더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여성은 출산, 자녀 양육, 가족 관계, 사회 및 경제 활동 등 여러 부문에서 남성과 다른 경험에 직면하거나 다른 실천을 수행한다. 이러한 젠더적 경험은 귀농·귀촌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농촌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경험을 갖지 않는다. 또한 농촌 정착 과정에서 여성의 인식과 요구도 성별 특성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적절한 귀농·귀촌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필요하다.

필자는 여성의 농촌 이주 및 정착 경험에서 젠더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한 여성들은 고착화된 가부장적 젠더 질서 안에서 다양한 적응 전략을 펼치면서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해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정착의 과정을 가부장적 젠더 체계에의 ‘순응’이 아닌 ‘대응’ 전략과 실천 안에서 파악하고, 귀농·귀촌 여성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농촌 여성을 가부장제에 복종하거나, 이중 삼중의 노동을 감내하는 피해자의 위치가 아니라 농촌 사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 행위자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예를 들어 문옥표 1992; 조옥라 1996; 박주희 2009 참조), 귀농·귀촌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귀농·귀촌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진안군, 임실군, 완주군 내 농촌 마을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세 지역을 선정한 까닭은 연구자가 살고 있는 전주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필자의 인맥을 동원하여 정보제공자를 찾는 데 수월하였기 때문이다. 진안군 조사는 2012년 6~8월에 15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의 결과는 이미 보고

서와 논문으로 각각 한 차례 출간된 바 있다. 이후 진안군의 기존 면담자와 새로운 귀농·귀촌 여성을 추가하고, 임실군과 완주군으로 지역을 확장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과 2014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진행되었다. 분석에 활용된 정보대상자는 총 21명이다(진안 16명, 임실 3명, 완주 2명). 이 외에도 귀농·귀촌 여성들이 주축이 되거나 다수 참여하는 모임에 참여관찰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토착 주민 인터뷰, 신문 기사, 지자체의 내부 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름	나이	귀농·귀촌 시기	가족구성 ()는 세대원 수 아래는 자녀 수	귀농 전 직업	현재의 일
이세진	31	2010	2세대가구(4명) 2명	미술학원 강사	프리랜서 (미술, 디자인 관련 외주 일)
조수경	41	2009	2세대가구(3명) 2명	대안학교 교사	이주여성 한국어 수업, 학교 방과 후 수업
최선영	42	2009	2세대가구(3명) 2명	전업주부	이주여성 한국어 수업, 가족상담
김주현	43	2010	2세대가구(6명) 4명	농업, 사회단체 간사	간사
김은정	43	2008	2세대가구(6명) 4명	전업주부	학교업무도우미
노애리	44	2009	2세대가구(4명) 2명	미용사	사과농사, 아르바이트
김미연	44	2011	2세대가구(4명) 2명	출판사(일본어 출판 및 일본 유학 업무)	산촌매니저
구수영	44	2009	2세대가구(4명) 2명	영어 강사 및 번역 활동	영어 교사
이선진	44	2010	부부가구(2명)	신문사 편집일	농업회사 법인 총무부장
이희정	52	2008	3세대가구(4명) 1명	에건미용회사, 보청기 회사	일시 전업주부
양금선	52	2008	부부가구(2명)	상업	진물임대업, 조정수재배
이혜숙	54	2005	단독가구(1명)	전업주부	오미자 농사(규모 적음)
박재순	56	2005	부부가구(2명)	목사	농사
김덕순	58	2011	부부가구(2명)	학원 행정	도서관
이은순	64	2008	부부가구(2명)	홈쇼핑회사 고충처리업무	펜션, 숲해설사
김수진	50	2008	2세대가구(4명) 4명	가게 운영	협동조합 운영
이유정	41	2012	2세대가구(4명) 2명	회사원	농사
강은화	41	2011	3세대가구(6명) 3명	전업주부	농사, 아르바이트
심주미	35	2012	2세대가구(4명) 2명	전업주부	농사, 아르바이트
임윤지	41	2011	2세대가구(4명) 2명	전업주부	전업주부
송현진	41	2011	2세대가구(4명) 2명	시민단체활동	카페운영

2. 농촌 정착 과정에서의 여성적 경험과 특성

2.1. 농촌 이주 및 정착의 동력, ‘신맹모농촌지교(新盟母農村之校)’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2010~11년 사이 전라북도 학생의 전출·전입 규모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입생이 400여 명 가량 많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출 학생은 11,272명인 데 반해 전입생은 11,681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8개 군 지역에서 전출생보다 전입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news.jbe.go.kr>). 교육청은 농어촌지역 학생 수 증가를 귀농·귀촌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10년 3월 8일자 진안신문도 읍 단위 학생 수는 줄어든 반면 면 단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크게 증가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결혼이민자 및 귀농·귀촌 가정의 자녀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진안신문 2010. 3. 8일자). 귀농·귀촌인의 이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완주군의 ‘S 초등학교’이다. 2004년 77명이던 학생수는 2013년 현재 112명으로 증가했다. 2012년도 입학생 수를 놓고 보면 21명 중 무려 17명이 귀농·귀촌한 가구의 자녀로 확인되었다(고산향교육공동체 2013: 384).

이처럼 아이를 농촌 학교에 보내기 위해 농촌 이주를 택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빗대어 ‘맹모산촌지교’, ‘신맹모농촌지교’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다. 이는 도시에 살던 엄마들이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농촌으로 옮기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³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운데에도 ‘자녀 교육’ 문제를 이주 동기의 한 요인으로 꼽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귀농·귀촌할 당시 한참 성장기의 자녀, 즉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대상자는 모두 1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농촌으로의 이주 배경을 이야기할 때 자녀의 교육 문제를 언급한 이는 9명이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였다든지(최선영, 구수영), 한참 감수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농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든지(조수경), 아이들을 억지로 학원에 다니게 하고 싶지 않았다든지(김은정, 강은화, 김수진), 아이를 포함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다든지(김미연), 아이를 시골의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었다든지(임윤지, 송현진) 등이 그 예이다. 자녀를 중심에 놓고 귀농·귀촌을 결심한 여성들에게 농촌으로의 이주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남편을 오랜 기간 설득하여 이주한 이도 있었다(송현진 사례).

3 2013년 9월 3일 필자는 전북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신맹모농촌지교 좌담회’의 진행을 맡은 적이 있다. 진안, 완주, 순창, 임실 등의 농촌으로 이주한 학부모 5명을 초청하여, 농촌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어보기 위해 기획된 자리였다. 5명 가운데 남성은 딱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넷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이 교육을 위해 ‘농촌’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을 이주 동기의 한 요인으로 꼽는 현상은 2008년 남성 중심의 조사에서는 두드러지게 발견하지 못했던 대목이다. 남성(남편)들이 이주의 동기로 농촌의 가치, 부모 부양, 영농 등을 이야기할 때 여성들은 자녀의 교육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들이 아이 양육, 자녀 교육과 같은 문제를 중요한 이주의 동기로 내세우는 모습을 통해 귀농·귀촌 동기에 나타난 젠더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 상당수는 ‘신맹모’에 해당하는 부류로, 자녀들을 도시 학교가 아닌 농촌 학교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물론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모두 농촌에서의 자녀 교육을 지향하는 ‘신맹모’는 아니다. 조사대상자 가운데에는 자녀의 학습 부진을 염려하며 농촌 이주를 주저한 경우도 있었다(노애리 사례). 50~60대의 양금선, 이혜숙, 김덕순이 농촌행을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녀가 20대 이상으로 전부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귀농·귀촌 여성에게 이주를 앞당기든, 역으로 이주를 미루든 ‘자녀’는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학년기 자녀를 둔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교육 부문에서 만족감을 표출했다. 자신의 아이가 ‘서울에서의 학교 애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다든지’(조수경), ‘학교 가고 싶다는 말을 처음으로 했다든지’(최선영), ‘전교 회장에 출마를 했다든지’, ‘이제 다시는 도시 학교는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든지’(김은정), ‘작은 학교라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든지’(구수영), ‘아침에 학교 가지 말자라고 하면 금세 일어난다든지’(이유정), ‘농촌으로 좀 더 일찍 오지 않은 걸 후회했다든지’(김수진) 하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자녀가 농촌 학교에 안착한 모습을 보면서 농촌 정착의 힘을 얻고 있었다. 농촌 이주 및 정착의 주요 동력으로 ‘자녀’를 언급한 것은 조사대상 여성들이 자녀 양육의 담지자인 ‘엄마’, ‘어머니’로서의 모성 정체성을 체현(embodiment)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 필자는 2008년 당시 총 20명의 남성대상자들 조사를 바탕으로 농촌 이주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시골에서의 삶을 희구하려는 집단, 둘째는 부모 부양을 위해 귀농한 집단, 마지막은 영농에 희망을 걸고 귀농한 집단으로 분류한 바 있다(진양명숙 2008: 113). 둘째, 셋째 유형은 모두 6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첫째 유형에 속했다. 첫째 유형의 예로, ‘시골에서 살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에’, ‘깨끗한 먹거리를 가족에게 먹여주고 싶어서’, ‘차막히고 공기 안 좋은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서’,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시골에 살고 싶어서’, ‘희망이 농촌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사지며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자연과 벗하고 싶어서’, ‘건강을 찾고 싶어서’ 등을 꼽았다. 이들은 농촌의 깨끗함, 순수함, 편안함, 희망, 좋은 인심 등을 떠올리며 농촌이주를 결심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동기에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자녀 교육에 관한 물음을 던졌을 때에야 농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다고 대답했다.

2.2. ‘의사(擬似) 시대’ 편입으로의 인식과 분투

1998년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205명 조사대상자 가운데 고향농촌으로의 귀농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1998; 고성준 2008: 36 재인용). 이 때 고향농촌으로의 귀농은 U턴형을 말하는데, 대부분 남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통계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남편연고형의 U턴 귀농의 수치는 낮지 않다(예를 들어 강대구 2006; 고성준 2008). 남성연고형 귀농은 대부분 여성의 입장에서는 J턴이나 I턴에 해당된다.⁵

성지혜(2011)는 남편과 아내의 연고지 여부를 중심으로 가족 내 젠더역학관계나 성역할을 고찰한 바 있다. 부부연고형과 남편연고형의 경우 여성의 농촌 정착이 무연고형과 아내연고형에 비해 더 힘들다고 보았다. 남편연고형의 여성들은 주로 남편의 제안에 의해 이주한 경우가 많으며 농촌에 와서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시댁이 자 친정으로 이주한 부부연고형이라 하더라도 여성은 친정보다는 남편, 시댁에 맞춰 생활해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남편연고지로의 귀농은 ‘시댁으로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성의 농촌 경험과 정착은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에서 남편의 고향으로 이주한 사례는 강은화, 이은순 둘로 나타났다.⁶ 시아주버니가 살고 있는 마을로 이주한 이은순은 이미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데다, 마을과 약간 떨어진 곳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시집살이의 어려움은 없다고 했다.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강은화는 가끔 시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잘 적응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여성의 입장에서 시부모가 살고 있는 남편 고향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농촌에 살고 있음에도

5 귀농 경로에 따라 그 유형을 U-turn, J-turn, I-turn으로 구분하고 있다. U-turn은 ‘농촌→도시→ 고향농촌’을, J-turn은 ‘농촌→도시→타향농촌’을, I-turn은 ‘도시→농촌’을 의미한다.

6 강은화(41세)는 광양에 살다 남편의 고향인 입실로 이주했다. 남편은 고향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신 아버지를 위해 주말마다 농사일을 도우러 다녀갔다. 그녀도 자주 남편과 함께 입실 시댁에 오곤 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측은했다고 한다. 또 아이들이 도시 학원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학원에 갇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회의를 느끼고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그 쪽 일을 당장에 그만둘 수 없어 현재까지는 광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에 3일은 입실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영업을 접고 귀농할 계획이다. 이은순(64세)은 남편의 질병이 계기가 되어 남편의 고향인 진안으로 이주한 사례이다.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 고향의 시부모는 모두 돌아가시고 시아주버니가 거주하고 있다.

다른 농촌 마을로 이주하기도 한다. 심주미의 사례가 그 예이다. 남편은 스트레스로 인해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이 부부는 농촌행의 대상 지역을 남편의 고향이자, 시부모가 살고 있는 부안군이 아닌 임실군으로 정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부안으로 가면 진짜 붙잡히게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며느리인 심주미에게 부안은 붙잡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택이었던 것이다. 심주미처럼 점차 부모의 영농 승계를 목적으로 한 귀향자보다 무연고지로의 귀농·귀촌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정호·마상진 2006; 호남사회연구회 2008; 전북발전연구원 2009; 농업인재개발원 2011 참조). 그러나 여성들이 시부모가 없는 마을로 이주하였다고 하여 시택으로부터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와는 다른 농촌 사회의 독특한 ‘마을’ 구조에 기인한다. 농촌 사회의 기본 구조는 마을 단위로 되어 있다. 이 때 마을은 도시에서와 같은 물리적 행정 단위로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한 개인이 이웃과 굳이 교류할 필요 없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농촌 마을은 개인의 거주 공간과 일상 생활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어, 이웃과 교류할 수밖에 없다. 즉 농촌 마을은 주민들 간의 정서적·감정적 교류가 수반되는 구조이다. 개인의 생활공간이 마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대문’이다. 대문은 집 영역의 표시일 뿐, 사생활을 보호하는 물리적 경계가 아니다. 조사대상자들이 마을에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구가 ‘불쑥불쑥’이란 용어이다(박성정 외 2012: 87-88). 마을 주민들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집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세진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커피 타달라고 하거나, 자신을 며느리처럼 이용하려 드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희정은 옆 집 할머니는 자기 집의 세탁기를 몇 번 돌리는 것까지 상관을 한다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할머니 때문에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까지 했다고 한다. 박재순도 이웃 주민들이 그냥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거나, 새벽 5시 반에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적잖이 놀랐다고 한다. 진안군 혁신학교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여성 A씨(30대)는 남편의 고향으로 이주하여 시부모와 함께 사는데, 자신이 수발되어야 할 상대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교유하는 동네 할머니들까지라고 얘기했다. 동네 할머니들이 매일 놀러 오는 데다, 놀러 오지 않아도 집이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여 항상 대문 앞이 시택이라고 했다. 읍내 큰 마트에 들러 물건을 사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봉투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에 다들 관심을 보여, 이제는 한밤중 몰래 물건을 꺼낸다고 했다.

이처럼 농촌 정착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성적 경험의 주요 대목은 바로 ‘시택’의 확장이다.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에도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농촌에 와서 동네 할머니들

과 맺는 관계를 ‘고부관계’로 묘사한 이도 있다. 예를 들어 이세진은 마을 회관에서 자신을 ‘며느리’처럼 부러먹으려는 느낌을 받았고, 김주현도 이주한 여성들이 수십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으며, 구수영도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마을 주민과 맺는 관계는 고부관계와 똑같다고 언급했다.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와서 적응해 가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은 마을 주민들의 잦은 방문과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귀농자 집단으로 구성된 마을을 택한다거나, 기존 토착 주민 마을과 떨어진 곳에 정착지를 선택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꾀하였다. 이해숙은 처음부터 마을 안 쪽의 집을 알아보지 않고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딴 집을 택해 귀농하였다. 김은정은 귀농학교 교육에서 현지 주민과의 갈등을 익히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토착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이주자들로만 구성된 집단형 귀농단지 마을을 선택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노애리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을과 큰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마을회관에 거주하며 산촌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미연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박재순은 6년 정도를 마을 한 가운데에 살다, 집을 지을만한 장소를 물색하면서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예전보다 사는 게 편해졌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을 많이 원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마을 한 가운데로 들어와서 힘들어하지 말고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살 것을 조언했다.

조사대상자들이 마을주민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에 정착지를 물색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거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조사에서 마을 주민들과 갈등 상황을 토로한 이는 이해숙뿐이었다. 나머지는 비교적 마을 주민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은 주민들의 간섭과 관심을 농촌의 문화나 정서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의 농촌 정착 과정을 ‘의사 시대’으로의 편입으로 비유하는 까닭은 낯선 농촌 환경에서 토착 주민들과 관계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 결혼 후 시대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며느리의 위치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의사 시대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인식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적응 전략을 구사하며 농촌 사회에 편입하고자 했다.

2.3. 보수적 젠더 위계 질서에 대한 대응 전략

조옥라(1998)는 한국 농촌 가족에는 현대성과 보수성, 이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다고 보았다. 가족의 이념이 친족 중심에서 직계가족 중심으로 변화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농촌 지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 체계는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읍면사무소, 농협, 지도소, 보건소 등 공식 행정조직을 통해 전통적 권위 체계는 관료주의와 결합되면서 남성중심적 체계를 고착화하고 있다. 부녀회장, 이장 등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진안군에 사는 몇몇 토착 주민의 인식을 들여다보더라도, 보수적 젠더 규범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너무 경우만을 따지고, 도도하게 굴면서 기존 주민들을 무시한다거나’(김성례, 53세), ‘마을 일에 너무 설쳐댄다거나’(이명선, 61세), ‘어른들에게 싸가지 없게’(최경라, 63세) 행동하는 모습이 거슬린다고 했다.

귀농·귀촌 여성들은 농촌 사회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젠더 위계 질서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박재순의 시선에 남녀차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이 한 두 가지 들어온 게 아니었다. 마을회관에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는 물론 심지어 젊은 남자들도 상에 앉아서 먹는데 할머니들은 그냥 방바닥에 밥과 반찬을 펼쳐놓고 먹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할머니들끼리 있을 때는 다리 쪽 펴고 앉아 있다가도 남자가 들어오면 편하게 뺀고 있던 다리를 오므리고, 여성들은 마을 회의는 참여하지 않고 남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편했다고 한다. 박재순 외에도 마을 회관 내에서의 불편한 젠더 규범을 언급한 사람은 여럿 있었다(예를 들어 이세진, 김은정, 이선진, 김미연).

그 밖에도 조수경은 농촌의 토착 젊은 여성들이 남편과 애들의 수발을 들면서 스스로를 여자의 굴레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고 했다. 엄마가 잠시 집에 없어도 남편과 애들은 어렵히 알아서 잘 할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와 엄마의 굴레에 너무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희정은 남녀 유별이 도시보다 더 강하게 남아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여자들이 나서는 것에 믿음을 보내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최선영은 마을 활동으로 주민 집을 방문할 경우 중장년의 남성들은 차 한 잔을 내주질 않고, 오히려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농촌의 가부장적인 면을 얘기했다. 특히 밤 늦은 시각, 자기 차가 없으면 항상 주민들은 ‘어젯밤 차가 없대’라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남자였으면 밤에 차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자신이 여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미혼의 독신으로

농촌에 이주하였던 이선진 역시 혼자 사는 여성은 농촌에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을 며칠 비우면 항상 궁금해하고, 뒷말이 난다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사는 노애리도 밤 11시 넘어 귀가하는 자기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을 알았다. 김미연은 자기 마을이 마을 활동을 하는 간사나 매니저로 남자가 아닌 여자를 뽑는 이유는 남자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이전에 활동했던 산촌 매니저도 여자였다고 한다. 특히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강하기 때문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자기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부딪히고, 그 대상이 여성일 때에는 더욱 부정적이라고 했다. 김덕순은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부장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같고,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은 일상화되었으며, 욕설도 심한 편이라고 했다. 김주영은 귀농·귀촌한 이웃 여성을 사례로 농촌의 보수적인 젠더 규범을 들려주었다.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그 여성은 밤 늦게 작업할 때가 많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고 했다. 그리고 도시에서 입던 하늘하늘한, 소위 ‘로하스풍’의 옷을 입고 다녔고, 남편에게는 ‘자기야’라는 호칭을 썼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따가운 질책 거러였다. 그녀는 토착 여성들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바꿀 것을 지적받았다고 한다.

박재순은 할머니들에게 오므렸던 다리를 펴고 있으라고, 할아버지들과 같이 앉아 상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마을회관의 젠더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1년 정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러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할머니들을 바꾸려는 것은 곧 할머니들이 평생 살아온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짓고,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어른들의 삶의 체계는 이미 고착화된 ‘문화’가 되어 이를 바꾸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은 마을 내 여러 공간에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젠더 규범과 질서를 목격하고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자신들의 삶이나 일상에 직접 피해를 입히거나 방해를 한다고 여기지는 않는 듯했다. 그 까닭은 마을 어른들과의 접촉 빈도가 많지 않고, 그녀들 스스로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출퇴근 중심의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 되었고, 부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대답한 이는 두세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가끔 일이 있으면 도와주거나 회비를 내는 정도였다. 마을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과 잦은 교류를 해야 하는 김미연은 ‘남성 중심’ 구조 속에서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고 되도록 발언을 삼가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했다. 그녀 나름대로 거리를 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거지’가 도마 위에 올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거나, 한 귀로 흘려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거리 두기 전략의 하나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이러한 젠더 규범에 적당한 거리 두기 전략을 취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주민 사회에 융화되어 적응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⁷ 앞서 토착 주민 여성이 언급한 것처럼 여성들이 너무 마을 일에 설쳐대거나, 도도하게 굴거나, 버릇없이 굴 때 이는 주민들의 눈 밖에 나고, 잘못될 경우 농촌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성불평등의 구조를 전면으로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자칫 ‘지나치게 설쳐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3. 농촌 정착을 향한 주체화 양상

3.1. 일자리의 모색, 그리고 농촌 주체로의 적극적인 편입

농촌의 산업적 근간은 농업이지만,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농업’은 주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귀농·귀촌 남성 조사에서는 이주 동기로 ‘영농’을 꼽고, 농촌에서의 직업을 ‘농업’이라고 답한 이가 상당수 되었으나, 이번 여성조사에서 전업농이라고 답한 이는 3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직업은 비농업, 겸업이었다. 겸업은 농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농한기나 틈틈한 시간을 이용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와, 반대로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농산물로 약간의 수입을 내거나 자급하는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후자가 훨씬 많았다. 이 가운데 전업주부는 2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업주부 2명 중 한 명은 육아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이므로 거의 모든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자들의 경제활동은 농촌 이주 후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주 전 전업주부였던 사람은 6명이었다. 즉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조사대상자들의 가구 경제는 맞벌이로 영위되어 왔으며, 농촌에 와서도 맞벌이 경제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농촌에서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50만 원 안팎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농촌에서도 고정적인 현금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생활비 지출은 여성들로 하여금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7 그나마 젠더 규범을 바꾸기 위해 1년 정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박재순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지 않지 않은 까닭은 마을한복판에 거주하면서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 주민을 자주 찾았고, 마을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마을 주민과 가까이 지내려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을청년회 부회장, 주민합동출범기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의 경제 활동에 관한 조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들은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농촌 이주 전 도시에서의 직업을 그대로 잇고 있는 이는 3명에 불과하고,⁸ 나머지는 이주 전의 직업과는 다른 직종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농촌의 일자리에 대해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다. 물론 일부는 ‘○○ 공장 외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거나(김은정 사례), ‘농촌에서 정규직의 사무직 일자리는 도시에서의 전문직 여성이 응시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고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김주현 사례). 하지만 대부분은 농촌에서의 일자리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 아이를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세진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일을 쳐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돈은 나중에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희정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촌에는 소소하고도 작은 일거리가 많다’고 얘기했다. 최선영은 ‘생각보다 이 곳에 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노애리도 ‘농촌에서는 젊은 인력이 부족해 일자리를 찾지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김미연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며,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워서 하면 된다’고 했다. 고선경도 ‘본인이 노력만 하면 100만 원 안팎의 일자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선진은 ‘도시에서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으나 이 곳에서는 그렇지 않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이혜숙도 ‘귀농·귀촌한 여성이 할 일은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현정은 ‘비록 월급 주면서 기다리는 자리는 많지 않지만 젊은 사람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농촌’이라고 했다. 이유정은 ‘학교나 군청 등 젊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으며,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일자리가 있다’고 얘기했다. 강은화도 ‘파트타임 잡이 많지만 현재 자신은 자기 계발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주미도 ‘현재는 농사로 생계를 충당하지만, 농촌에서도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때 조사대상자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주로 농외 소득에 해당하는 비농업 부문으로, 문화, 복지, 교육,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해당되는 직업군이다. 문화의 집이나 평생 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강사, 기간제 교사, 방과 후 교사나 돌봄 교사, 학부모 멘토 교사,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사, 학교 업무 도우미, 간병이나 목욕 돌보미 등의 노인 요양 직종, 숲 해설사, 마을 간사, 도서관 사서, 공공기관에서의 파트타임 등이 이에 해당한

8 미술학원 강사를 했던 이세진은 디자인 계통으로 프리랜서 일을, 학교 교사였던 조수경은 방과 후 교사를, 영어 강사였던 고선경은 진안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다.

다. 비농업부문 일자리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고용 기간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고령의 여성 노인이 다수인 농촌에서 이러한 일자리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귀농·귀촌한 젊은 여성 세대의 위치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류, 효소, 식품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김은정, 박재순, 송현진, 김수진 사례)이나 농촌 관광(송선순 사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 여성들은 농업 생산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 문화, 복지 등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므로, 귀농·귀촌한 지역의 여성들이 이 영역을 채워나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귀농·귀촌 여성들이 저마다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농촌에서의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에 그치지 않고, 타자화의 시선을 피하고, 지역 주체로 인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토착 주민에게 귀농·귀촌 여성은 낯선 타자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농업 노동을 하며 살고 있는 토착 주민 여성들에게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은 낯설게 비쳐지기 마련이다. 토착 주민들은 농촌의 자연 풍광을 감상하며 유유자적하게 살기 위해 들어온 전원생활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자주 거론되는 예가 동네 주민들은 퇴약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귀농·귀촌 여성들은 양산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농촌 마을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타자가 아닌 주체로 호명되기 위해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박성정 외 2012: 85-86). 조사대상자들에게 ‘예비 귀농·귀촌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일”을 강조했다.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말 것’(이세진), ‘농사를 꺼려하여 방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골 정서와 맞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것’(최선영 사례), ‘상추 한 포기라도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노애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구수영), ‘자기 가치가 실현되는 일을 찾을 것’(박재순) 등이 그 예이다.

3.2. 학부모 전략의 구사와 공공 영역에의 참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녀를 농촌 학교에 보내고, 자연과 가까이에서 자라도록 하려는 욕구는 귀농·귀촌 여성에게 농촌 이주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도시에서의 제도권 공교육에 회의적이었고, 경쟁, 학원 중심의 사교육에 비판적이었다. 이 중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 이도 있었다.⁹ 학부모인 조사대상자들은 농촌 이주 후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중·고 학년기의 자녀를 둔 조사대상자 13명 중 김수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표 2> 참조). 특히 학부모 대표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견을 제안하는 구조에 들어 있었다. 학부모가 아닌 박재순도 지역의 학교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활동 참여 양상

	조사대상자 학교 활동 참여 양상
조수경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토론편모임
최선영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고등학교 학부모회
김주현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김은정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중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노애리	○○초등학교 학부모회 전 회장, 진안지역 혁신학교학부모회 운영위원회
김미연	○○초등학교 학부모회
구수영	○○중학교 영어 강사, 남편이 운영위원회
이유정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모임
강은화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모임
심주미	○○초등학교 학부모 독서모임
임윤지	린교육공동체, 고산향교육공동체
송현진	고산향교육공동체 임원
박재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조사대상자들 개개인의 활동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나 모임을 통해서도 그 ‘활약’을 엿볼 수 있다. 진안의 혁신학교학부모모임, 임실의 자작모임, 완주의 린교육공동체가 그 예이다. 2014년 5월 16일 저녁, 필자는 임실의 한 귀농·귀촌인 모임인

9 이세진은 백신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예방접종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교육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 김희정은 아이를 입양하였고, 하나 더 입양할 것을 남편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권 학교 교사직을 그만 둔 후 7년 동안 대안학교 교사 활동을 했던 조수경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공동 육아 방식으로 키웠고, 자녀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홈스쿨링과 대륙횡단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수영도 공동육아로 자녀를 키웠다. 김주현도 자녀가 원하지 않아 포기했지만, 공동육아를 하는 곳에 보내려고 시도를 한 바 있다. 김미연은 마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최대한 작은 학교를 선택하고자 했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3~5년간 외국에서 함께 생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자작(自作)’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ㄷ 초등학교’를 찾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독서실에 모여 귀농·귀촌인 모임을 한다는 얘길 듣고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다. ‘자작’은 학부모 독서모임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독서모임을 통해 알게 된 귀농·귀촌인들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작’을 결성하여 매주 한 차례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학부모 동서동아리, 멘토링 지도 강사, 돌봄 교사 등 학교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 학교 운영이 끝난 저녁 시간에 학교 공간을 배려해 준 것도 이들을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자작 모임은 모두 ㄷ 초등학교나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남성은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다. 자작모임의 이유정은 독서모임에 참여한 다수가 귀농·귀촌인이었다고 하면서, 이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학교 일에 관여하는 경향이 높다고 했다.

6월 13일에는 진안군 혁신학교학부모모임에 참여했다. 이 학부모들은 각 혁신학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부모 총 17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여성은 10명이다.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귀농·귀촌한 여성들이었으며, 2012년 조사에서 만났던 여성도 2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진안군혁신학교학부모회의’는 학부모 대표가 자신의 학교에서 추진되었던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안전 등을 토의하며, 각종 공지 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이다. 이 날 보고된 각 학교 활동 내역은 신문 발간, 학교 텃밭 조성, 독서모임, 교사·학생과 벽화그리기, 캠프 진행, 고원길 걷기, 스승의 날 롤링페이퍼 작성 등으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회의 안건은 전통놀이운동회에 관한 것이었다.

완주에서도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이뤄진 ‘린교육공동체’가 있다. 2011년경 카페 ‘이웃 린(隣)’을 통해 알게 된 지역의 학부모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하면서 ‘린교육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린의 구성원은 모두 39명인데, 귀촌자가 80%를 차지한다고 했다. 린의 주축인 송현진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한 학부모 참여 활동의 예를 하나 들려주었다. 린의 학부모들은 ‘ㄷ 초등학교’에 ‘아침 자습시간에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행정 업무에 치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선생님들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자신들을 감시하려 드는 건 아닌가 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묵묵히 책 읽어주기를 계속하자 자신들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고 한다. 린은 현재 ‘고산향교육공동체’의 주축이 되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¹⁰ 고산향교육공동체 재능기부자 27명 가운데 15명이 귀농·귀촌한 여성이다. 송현진은 ‘ㄷ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귀

농·귀촌 학부모들의 직업군은 다양하지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점, 학교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늘날의 학부모 활동은 옛날 자모회 활동과는 다른 것으로, 학교가 가야 할 가치관이나 방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얘기했다.

임실의 ‘자작’ 모임, 진안의 혁신학교학부모모임, 완주의 린교육공동체는 여성들만의 조직은 아니다. 그런데 구성원의 상당수가 귀농·귀촌한 어머니들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자녀의 학교를 기반으로 한 조사대상자들의 학부모 활동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공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진안교육협동조합, 고산향교육공동체가 그 예이다. 진안교육협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L씨(남, 50대)는 농촌 활성화는 농촌의 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를 중심에 놓으면 부모가 움직이고, 부모가 움직이면 마을이 움직이고, 마을이 움직이면 지역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활동에의 참여와 공동체 활동은 그녀들을 지역 아이들의 어머니로, 지역주민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학부모 활동을 위시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 보육 및 양육이 가내(domestic) 영역에 그치지 않고 농촌 교육 및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public)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3. 사회적 관계의 확장, 그리고 ‘여성의 연대’

귀농·귀촌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유형을 공간적 영역으로 이원화한다면 마을 안팎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앞서 우리는 조사대상자들이 마을로의 입성을 시택으로의 편입으로 비유하면서도,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마을 내에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귀농·귀촌한 여성들의 일자리가 마을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선진과 최선영은 마을간사를 계기로, 김미연은 산촌매니저를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10 고산향교육공동체는 고산 지역의 초·중·고와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총 6곳을 아우른 단체이다.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농촌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결사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린’의 주요 멤버이자, 고산향교육공동체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현진을 인터뷰하러 간 날은 고산향교육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인문학강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송현진과 임윤지는 강연 준비로 매우 바빠 보였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다. 김덕순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사서 회의를 통해 다른 도서관의 사서들을 만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른 마을의 귀농자들과 책, 씨앗, 모종에 관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이은순은 현재 가입한 모임이나 단체가 열 곳이나 될 정도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조수경은 결혼이민자여성 한국어 수업, 방과 후 및 공부방 수업,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요가 수업을 하면서 이웃 마을 주민들과 만난다.

때로 여성들의 연대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이뤄지기도 한다. 김수진은 같은 마을에 사는 귀농·귀촌 여성 네 명과 함께 ‘x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녀는 취미로 해왔던 제빵 기술을 활용하여 생계에 도움도 되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마을기업 형태의 협동조합을 알게 되었고, 4~5개월의 준비를 거쳐 조합을 만들었다. ‘x협동조합’은 여성귀농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협동조합 1호로, 카페테리아 운영, 홈베이킹 정기 강좌, 각종 행사장에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펼치고 있다.

‘린’의 구성원들은 농촌에서의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면서 영농조합의 형태로 빵 공장을 설립하였고, 면 소재지에 ‘N’카페도 운영하고 있다. 빵 공장을 기획한 사람은 천연 발효 기술을 알고 있던 귀향한 젊은 남성 K씨(30대)고, 8명의 조합원도 가구 단위의 출자자들이지만,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노력을 기울인 이들은 송현진을 비롯한 여성들이다. N카페¹¹는 린 구성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가 두 번째 인터뷰를 하러 간 날에는 너댓명의 아줌마로 구성된 밴드의 공연 연습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 ‘x협동조합’, ‘린 빵공장’, ‘N 카페’ 등은 귀농·귀촌한 사람들 몇몇이 뜻을 같이 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제활동 조직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은 여성들의 연대와 접목되고, 마을 단위를 넘어 보다 더 넓은 지역 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귀농·귀촌한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연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학부모 활동과 거기에서 파생한 공동체 활동이 한 예이다. 자작 모임의 경우 발효, 독서, 한식조리, 악기 등 몇몇 동아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또 다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린의 구성원들도 주민들과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SNS를 통해 농산물 판매 및 공동 구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박재순은 마을로부터 지역 사회로 외연을 확장하며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다. 그녀는 “애초에는 대외적 활동을 아예 접고 매일 농사만 짓겠다는 각오로 마을에 입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인학교와 마을박물관에 자원 활동을 나온 귀농인들과 만나

11 N카페는 기존에 마을 구석진 곳에 자리했던 린 카페의 성격을 잇고 있다. 린 카페 자리에 빵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린 카페를 운영하는 K씨는 빵 공장에 집중해야 했다. 그래서 송현진이 나서 N카페를 면소재지로 옮겨와 운영하고 있다. 린 카페는 가정집과 함께 있어 불편한 데다, 마을 구석진 곳에 자리해 교통이 불편하여 사람들이 찾기가 불편했다는 것이다.

다보니 그 모임이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바느질하면서 수다도 함께(일명 ‘바느질 모임)’라는 여성 중심의 모임을 면 단위 전역으로 확대하여 꾸리게 되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근의 무주군에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 15명 정도 된다고 한다. 그녀는 바느질 모임 안에서 ‘녹색가게’와 ‘지역화폐’를 구상하고 있었다(박성정 외 2012: 98).

김주희(2011)는 지난 30년 동안 한 마을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마을 여성들의 마을 밖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럴수록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 마을 밖 직장 생활 및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운전을 하였다.¹² 조사대상자들은 학교 모임, 자원 활동 모임, 작목반 모임, 귀농인 모임, 각종 결사체 등을 통해 마을 밖의 사회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맺어진 사회적 관계는 농촌 정착에 탄력을 주고 있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사회 자본이 단순히 개인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는 사적 재산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회 자본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사회자본으로서의 교환은 배타적 이익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구별된다(김기홍·허태영 2012: 98 재인용). 귀농·귀촌 여성들이 마을 안팎의 사회적 연망을 구축하고 확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자산과 이득은 구직이나 집 정보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호 신뢰 및 호혜 관계,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귀농인들끼리의 자조 모임이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은 공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집단적 수준의 사회 자본의 성격이 짙다. 귀농·귀촌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 자본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여성의 사회적 관계는 농촌 정착 성공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다.

12 농촌에서 운전은 기술적인 능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진안군마을만들기센터의 K씨(남, 50대)는 “운전면허는 필수이다. 가치관에 따라 꼭 운전이 필요하냐고 질문 받으면 ‘농촌은 자동차를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답한다”고 했다. 또한 운전은 주민과의 관계 맺기에도 유효한 역할을 한다. 장애 오고 갈 때 동네 주민을 차에 태워주는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엔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최선영, 구수영).

4. 결론: 연구의 요약과 한계

본 연구는 귀농·귀촌 정착을 둘러싼 양상과 특징을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귀농·귀촌 여성을 능동적인 행위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농촌 이주 및 정착의 과정에는 젠더적 요소와 특성이 포출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의 분석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장에서는 농촌 이주 과정에 나타난 여성적 경험과 특성을 살피고 있다. 농촌 이주의 동기로 ‘자녀’를 언급한 점, 농촌 마을로의 진입을 의사 시댁으로의 편입으로 비유한 점을 통해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여성 정체성이 작동하는 지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농촌 마을의 보수적인 젠더 위계를 인식하면서도 적당한 거리 두기 전략을 통해 대응해가고 있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농촌 사회에 자리매김하려는 주체화 과정을 경제적,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비농업 외 분야에서 일자리를 모색하면서도 농촌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는 교육, 문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여성적 일자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은 일자리, 자조 모임, 학부모 활동을 통해 마을 단위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이자, 지역 사회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요컨대 농촌 사회에의 진입을 결정하는 데 자녀 양육의 담지자이자 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때로 보수적인 가부장제 젠더 질서는 농촌 사회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귀농·귀촌 여성들은 젠더 감수성에 바탕한 여성적 일자리를 찾고, 여성간의 연대를 형성하며 농촌 정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로부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정착 과정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젠더불평등의 지점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귀농·귀촌 여성은 가족, 마을, 직장, 학교, 지역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젠더 레짐(gender regime)으로 인해 농촌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는 젠더 레짐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여성들의 젠더 레짐에 대한 대응 양상을 다각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는 귀농·귀촌 여성과 토착 여성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귀농·귀촌 여성들은 나이, 학력, 직업 경험, 경제력, 정보력, 인적 자본 측면에서 토착 여성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토착 여성으로 하여금 위화감이나 소외감을 일으키고, 토착 여성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학부모 활동을 중심으로 이러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을 둘러싼 갈등과 그 영향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귀농·귀촌 여성들의 ‘학부모’ 전략이 여성주의 모성 담론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전략을 통한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활동 안에는 어머니 욕망이 투영된 도구적 모성이 자리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 양육의 담지자로 여성을 가둠으로써 젠더 레짐을 강화해 버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귀농·귀촌 여성의 모성 전략을 신자유주의 가부장제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서 이해하려는 페미니즘 인식론(예를 들어 리치 1995; 임옥희 2010; 조은 2010)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부모 전략은 탈경쟁, 자연과의 순환,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생태여성주의 담론에서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다. 모성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경험적 일반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한 러딕(2002: 117)의 언급처럼, 학부모 전략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여성주의 ‘대항’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8권. pp. 23-53.
- 고산향교육공동체. 2013. 「고산향교육공동체백서」.
- 고성준. 2008. “귀농자의 실태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전라북도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 허태영. 2012. “사회자본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농촌사회」 제22권 제1호. pp. 89-131.
- 김정호, 마상진. 2006. “신규 취농의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1호. pp. 65-88.
- 김주희. 2011. “농촌 여성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이해.” 「농촌사회」 제21권 제2호. pp. 7-48.
- 꿈지모(에코페미니즘 연구모임). 2001. “귀농에 드러난 여성 주체의 얼굴.” 「환경과 생명」 제28호. pp. 171-177.
- 농업인재개발원. 2011. 「귀농·귀촌 교육수료생 영농정착 실태조사」.
- 러딕, 사라. 2002. 「모성적 사유」(이혜정 역). 철학과 현실사.
- 리치, 아드리엔느. 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김인성 역). 평민사.
- 문옥표. 1992. “농촌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한국문화인류학」 제24권. pp. 231-263.
- 박성정 외. 2012.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주희. 2009.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 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권 제2호. pp. 207-242.
- 성지혜. 2011.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동향: 1996~2010년의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pp. 77-90.
- 임옥희. 2010. “신자유주의시대 모성의 정치경제학.” 「여/성 이론」 제22호. pp. 10-32.
- 전북발전연구원. 2009. 「도시민의 귀촌 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다래. 2009. “비혼 귀농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대안적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 은. 2010. “젠더 불평등 또는 젠더 패러독스: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모성의 정치경제학.” 「한국여성학」 제26권 제1호. pp. 69-95.
- 조옥라. 1996. “여성농민의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9권 제2호. pp. 97-121.
- 조옥라. 1998. “농민가족의 현대성과 보수성”, 「한국문화인류학」 제31권 제2호. pp. 377-405.
- 진명숙, 박성정. 2012.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 생활 경험 분석: 진안지역 사례.” 「여성연구」 제83권 제2호. pp. 275-294.
- 진양명숙. 2008. “젊은 도시민의 농촌 이주의 양상과 성격: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16권 제4호. pp. 105-130.
- 호남사회연구회. 200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과 귀농·귀촌인 역량 DB 구축 연구」. 진안군청.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news.jbe.go.kr>>.
- 「진안신문」. 2010. 3. 8.

원고 접수일: 2014년 07월 24일
원고 심사일: 2014년 07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4년 09월 15일